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최형 베드로 (1809-1866)



충청도 홍주(洪州)에서 태어난 최형은 14세 때 부모의 권면으로 입교하였다. 그의 가족은 모두 신실한 신자였는데, 1836년 마카오 유학길에 올랐던 신학생 가운데 병으로 사망한 최방제(崔方濟)가 그의 동생이다. 또한 큰누이는 평생 동정으로 살았고, 형 최수(崔燾)는 병인박해 때 절두산에서 순교하였다. 이렇게 독실한 교우 가정에서 자란 최형은 1836년 나 베드로 신부의 복사가 되어 교회 일에 헌신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에는 묵수 일과 묵주 제작, 교회 서적 출판에 참여하였고, 장 시메온 주교가 입국한 뒤로는 교회 서적 출판의 책임자가 되어 큰 업적을 남겼다.

1866년 장 주교가 체포되고 교회 서적들이 적발되면서 최형은 같은 일을 하던 전장운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해 3월 9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53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성화_최성열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29주일 · 전교 주일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67(66), 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2, 1-5

화답송

시편 98(97), 1, 2-3, 4, 5-6 (◎ 2 참조 또는 3 참조)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또는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불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로마 10, 9-18

복음 환호송

마태 28, 19, 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 16-20

영성체송

마태 28, 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전과 예수님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에서 기도하는 교황 프란치스코

예루살렘 구도시의 중심에는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봉헌되었던 성전산이 자리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으신 뒤 광야에서 사십 일간 단식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곧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라고 유혹하였습니다(마태 4,5-6).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때의 성전은 없고 현재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만, 옛 성전을 지지하던 바깥벽이 어느 정도 남아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곳에 성전을 최초로 봉헌한 이는 기원전 10세기의 솔로몬 왕입니다. 2역대 3,1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 모리야 산에” 주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모리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지요(창세 22,2). 그런데 솔로몬의 제1성전은 기원전 6세기 초 바빌론에 의해 무너지고, 그로부터 약 50년 뒤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 즈루바벨이라는 지도자의 주도로 제2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원전 1세기에 일명 ‘건축왕’이라 일컬어지는 헤로데가 개축하고요. 이때, 그가 행한 공사 규모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쓰인 돌 대부분이 각각 2-3톤 정도였고, 가장 큰 돌은 무게 570톤, 길이 13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돌들은 모리야 산의 북쪽을 채석하여 마련했다고 합니다. 헤로데는 자기 건축물에 독특한 문양을 새기게 하였으므로,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묻힌 헤브론의 막펠라 동굴에도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어 헤로데가 제

건한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헤로데가 개축한 성전에서 활동하십니다. 하지만 세속 시장처럼 변질된 타락상을 꾸짖으며 환전꾼과 상인들을 양과 소와 함께 몰아내십니다(마태 21,12-13; 요한 2,16). 즈카 14,21에 따르면, 성전에는 신약 시대 이전부터 장사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을 성전에서 몰아내신 건 동물 제사의 폐기를 예고하시려는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희생 제사가 완성되면, 죄 사함을 위한 제물이 더는 필요 없을 터였기 때문입니다(히브 7,27).

유대인들의 기쁨이자 자랑이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마태 23,38) 파괴됩니다. 기원후 70년, 열혈당원들의 봉기를 진압하던 로마 장군 티투스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그 자리에 성전과 관련된 유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후 7세기부터는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메드의 승천을 기념하는 사원이 순금의 위용을 뽐내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고(요한 2,21), 주님께서 완성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또한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으므로(1코린 3,16), 당신의 거처를 백성 사이에 두시겠다던 하느님의 약속(에제 37,28)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전산은 이제 흔적만 남았지만, 예부터 이어져온 자신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곤조곤 들려줍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6장 세계 안의 대화와 우애 ④ - 새로운 ‘만남의 문화’, 사회 계약 및 문화 계약

회칙 「모든 형제들」은 다름이 공존하면서 그 다름으로 상호 보완되고 풍요로워지며 서로를 비취줄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고 사회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남의 문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합니다(215-220항). 만남의 문화를 증진한다는 건 소모되고 버려져도 괜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에 누구에게서나 배울 점을 발견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삶’은 만남이라는 아름다움의 계속되는 창작과 표현, 곧 만남의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문화 : 문화는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회칙은 이러한 일반적 정의를 국민(people)의 문화에 적용하여 “국민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념과 열망, 궁극적으로는 그 삶의 양식”(216항)과 관계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나 미디어의 도움으로 다수의 나머지 사회 구성원을 달래려는 일부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하는 국민 전체가 ‘만남의 문화’의 주체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평화는 만남의 문화가 맺는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평화를 질서의 고요함, 정의와 사랑의 열매, ‘만남의 문화’의 결실로 이해함으로써 그 의미를 풍요롭게 합니다. 회칙이 오늘날 소비 중심의 개인주의와 패거리 문화를 경계하는 까닭도 그것들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대신 그 배제를 일상화함으로써 엄청난 불의를 낳고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계약과 문화 계약 : 회칙은 ① 사회적 평화가 다른 국민의 생존권과 다르게 살 [문화적] 권리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그런 인식이 문화이자 생활 양식이 될 때 일종의 사회 계약(social contract)과 문화 계약(cultural contract)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② 만일 사회 계약이 없다면, “다른 국민을 하찮은 존재, 부적절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려는 교활한 방식”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특정 형태의 폭력”은 배척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더 교활한 또 다른 부류의 폭력”을 낳습니다. ③ 이는 회칙 전체의 맥락에서 ‘개별적 살인의 폭력’과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국가들이 벌이는 전쟁의 폭력’을 성찰하게 해줍니다. ④ 자유와 평등과 형제애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려면, 사회 계약이 하나의 사회에 공존하는 여러 다른 세계관과 생활 양식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문화 계약, 특히 사회적 약자의 문화에서 비롯되는 인본주의적 문화 계약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⑤ 이러한 문화 계약은 모든 나라의 국민에게 온전한 발전의 기회와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⑥ 이 같은 사회 계약과 문화 계약의 목표는 사회적 평화와 공동선의 증진이기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동기와 관심사 안에 무엇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적어도 무엇이 이해할 만한 것인지를 알아내려면, 때로는 [우리의 입장을 포기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야 하기”(221항) 때문입니다. 🌀

조지 드 라 투르의 불을 밝히는 소년 예수님

은은하면서도 깊은 빛이 칙흑 같은 어둠의 공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암흑 상태인 인간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호소력 있게 표현하는 데는 명암의 강렬한 대비, 즉 ‘명암법’(chiaroscuro)만 한 것이 없다고들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가 카라바조(1571~1610)에 의해 확립된 명암법은 곧바로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미술 양식을 ‘바로크 양식’(baroque)이라고 하지요.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바로코’(barocco)에서 유래합니다. 이는 매끄러운 진주 같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찌그러진 듯한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프랑스의 조지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 1593-1652)의 그림 역시 명암의 대비가 두드러지면서 부드러움과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북동부 알사스-로렌 지방 출신인 그는 내면의 깊은 묵상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화풍을 구사합니다.

작품 〈목수 성 요셉〉은 깊은 밤 어두운 실내에서 펼쳐 집니다. 요셉이 허리를 굽혀 목공 일에 몰두할 때, 사랑스러운 소년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요셉은 허리를 거의 직각으로 굽혀 나무상자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모자를 보살피기 위해 힘겹게 일하는 모습은 ‘노동의 숭고함’을 느끼게 합니다. 깊게 주름진 요셉과 대조적으로 소년 예수님의 얼굴은 젖살도 채 빠지지 않은 생기 넘치는 모습입니다. 옛되지만 맑고 총명한 눈망울은 벌써 성스러운 기운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혹시 불이 꺼져버릴까, 아버지 요셉의 눈이 너무 부실까, 조심스레 작고 여린 손



조지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 1593-1652), 〈목수 성 요셉〉, 1640년경, 캔버스에 유채, 137cm×101cm,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을 들어 불빛을 가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선 세심한 배려와 순수한 사랑이 전해집니다. 또한 그분의 곧고 깨끗한 손이 촛불에 비추어 반투명의 붉은 빛을 내는데, 그 표현이 너무나 섬세하고 사실적이어서 경이롭습니다. 금발의 긴 머리를 내려뜨린 예수님의 모습은 천상 존재의 맑은 영혼으로 빛나는 반면, 그가 두른 소탈한 갈색 옷은 참 인간의 가난하고 겸손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순수하고 여러 보이기만 하는 예수님은 훗날 세상으로 나가 참 빛으로서 어둠의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마음속 은은히 피어나는 신앙의 등불을 환히 밝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소리 높여 찬미하고 싶습니다. 이 기적의 빛을 마음 안으로 모셔 와 돌처럼 차디찬 주변을 은은한 사랑의 온기로 녹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죄의 밤에서 은총의 빛으로 돌아서는, 오직 평화만이 있는 거룩한 침묵으로의 초대입니다. ☸



교구 소식

한마음 어게인 Talk 특 어게인 토크 콘서트

일시 10/26(토) 10시~16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늘광장

모집 200명 (선착순)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회비 4만원 (점심식사 포함)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접수는 단체 및 개인 신청 모두 가능 (30명 이상은 1인 3만원)

2025년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 일산분원

신청 2025년 2/19(수)까지 (선착순 100명)

장소 백석동 성당 대강당 (일산분원)

수업 저녁반 (수, 금 19:30~21:40)

과정 정규과정 2년제 4학기 / 매학기 4과목

등록금 한 학기 40만원 (분납 가능)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기억합니다.

10월 23일은故 양종인 치릴로 신부의
12주기입니다.

[담화] 제98차 전교 주일

제98차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전신자 성경 읽기 10/20(주일)~26(토) : 루카 22,66-23,12



10/26(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공연

창작 뮤지컬 <김대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시성 40주년과
성인을 후보로 모시는 의정부교구의 설립 20주년을 맞아
창작 뮤지컬 <김대건>을 준비했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잇는 역사의 진실과 희망,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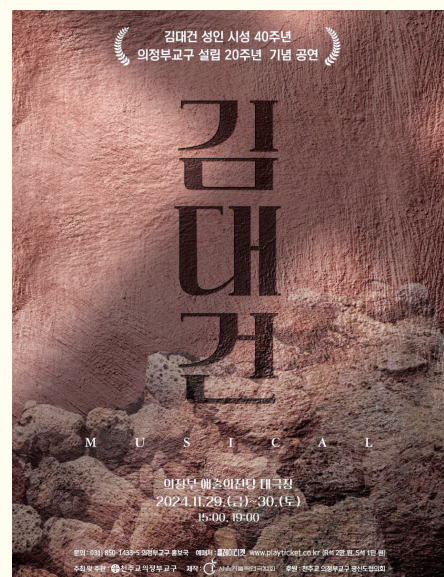
일시 11/29(금), 30(토) _ 15시, 19시 [총 4회]

장소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예매 플레이티켓 www.playticket.co.kr

문의 031-850-1433~5 홍보국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0/25(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감사

강사: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 (4지구 요양사목)

문의: 010-2127-0032

영성과 함께하는 몸 비우기

날짜: 12/6(금)~9(월)

장소: 강화도 일만위순교자 피정의집

주제: 영육간의 건강을 효소로 다스리는 피정

비용: 42만원 (효소비 5일분 포함)

문의: 010-9363-7784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평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11/15(금)~18(월), 12/20(금)~23(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12/6(금)~9(월), 강화도 일만위순교자 피정의집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평정

일시: 10/26(토) 14시 ~ 27(일) 14시

장소: 청주 초정성령회관

강사: 김완식 요셉, 김현우 바오로 신부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성령기도회 2지구 하루 대피정

일시: 10/28(월) 09:30~16:30

장소: 지금동 성당 대성전

강사: 김대영 베드로 신부 (전주교구 수류성당)

양창우 요셉 신부 (성 골롬반 전교수도회)

미사: 송영준 비오 신부

회비: 5천원 (점심 제공)

문의: 031-567-3950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피정

1차: 2/14(금)~15(토), 2차: 2/15(토)~16(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선착순 100명

회비: 10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ICPE 몸신학 피정 - 시그널 심화

일시: 11/22(금)~24(주일) [2박 3일]

장소: 마리스타 교육관 (마포구 합정동)

대상: 가톨릭 젊은이 청·장년

문의: 010-5646-6594 ICPE카톡플친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11/1(금) 10시~15:30 [매월 첫 금요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다네이영성수련: 10/25(금)~27(주일)

고3수험생 부모님피정: 11/14(목)

단식피정: 11/25(월)~29(금)

대침묵피정: 12/11(수)~14(토)

노베나신청: 11/2(토)~10(주일) 9일 동안 미사와

위령기도를 봉헌해드립니다.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가정회복 은혜의 낮 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10/21(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날짜: 11/1(금)~3(주일), 11/15(금)~17(주일)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본당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서강대학교 영성 특강

일시: 10/28(월) 14시~16시 [강의,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무료)

주제: 전례와 신앙체험_미사를 중심으로

강사: 구정모 신부 (예수회)

문의: 02-705-4711 서강대학교 법인 사무팀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11/14(목)~16(토), 12/7(토)~9(월),

12/13(금)~15(주일)

성지순례(추라도포함): 11/3(주일)~6(수),

11/18(월)~21(목), 11/24(주일)~27(수)

연말연시(한라산): 12/30(월)~1/2(목)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1/1(금)~9(토), 12/6(금)~14(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험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11/21(목)~23(토), 12/1(주일)~3(화),

12/6(금)~8(주일)

추라도포함: 11/16(토)~19(화)

연말연시(한라산): 12/29(주일)~1/1(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10월 민족화해 하늘지기 후원회원 미사

일시: 10/24(목) 11시 [매월 넷째 목요일]

장소: 주교좌 의정부 사적지 성당

문의: 031-941-623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강사: 10/22 이상기 가브리엘

10/29 인천 체나콜로 찬양팀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한마음 수험생 가정을 위한 피정

일시: 11/14(목)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대상: 수험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와 가족들

회비: 1인 3만원 (식대 포함)

지도: 김경진 베드로 신부

준비물: 미사 준비, 묵주, 개인컵이나 텀블러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의정부교구 7지구 성령 하루피정

일시: 10/28(월) 09:30~16:30

장소: 주엽동성당 대성전

강사: 윤민재 베드로 신부, 박희천 루케치오 신부

미사: 김경모 야고보 신부

치유기도: 두현자 율리아나

회비: 5천원

문의: 010-9697-9004, 010-3325-2871



교육 · 모집 ▶▶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신설강의·수료이벤트·다양한 무료 콘텐츠 제공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상시 모집)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제42기 복음화학교 개강

마두동성당 10/29(화) 19:30, 010-4575-5492

교구청 10/30(수) 19:30, 010-3273-8417

2024년 교리교사 양성캠프

일시: 11/16(토)~17(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신입교리교사학교를 수료한 분 (선착순 50명)

접수: 10/28(월)까지

문의: 031-850-1458 청소년사목국

의정부교구청 행주사제관 주방직원 모집

인원: 여 1명 (주40시간)
근무: 행주성당 內 행주사제관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격증명서(소지자)
문의: 031-850-1426 관리국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소식 참조

2025 회년맞이 특강 - 희망을 희망하다

주제: 시, 희망을 읽다 / 철학과 음악, 희망을 듣다 /
그림, 희망을 보다

일시: 10/24~11/7, 매주(목) 19:30 [총3강]
장소: 사랑의 힘 지하 강당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강사: 김기석 목사, 최대환 신부, 장동훈 신부
문의: 02-333-9898 한국CLC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5 전기 신입생 모집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접수: 11/4(월)~15(금) 17시
전형: 12/2(월) 14시
문의: 02-3147-8156 교학팀
02-3147-8664 조교

산자연중학교(대안교육) 학교설명회

 일시: [2차] 11/2(토) 14시
대상: 현재 초6, 중1
※ 전·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 전기 신입생 모집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모집: 10/28(월)~11/10(주일)
면접: 11/22(금)
문의: 02-2164-4176, 4787, 4173
<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가톨릭성가페스타 2024 축제 초대

날짜: 11/2(토)
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1부: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 (14시)
지휘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
2부: 가톨릭성가대 코랄 콘서트 (16:30)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 행사 시,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1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시각장애전문교육기관 충주성모학교

과정: 유/초/중/고/전공과 (5개 과정)
대상: 시각 장애 및 시력이 불편한 사람 (연령 무관)
지원: 무상교육, 기숙시설, 통학,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등
특전: 35종 장학금, 안마사 자격증 취득,
일자리사업 참여 등
문의: 043-852-1374, 843-1374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분야: 재무회계, 전문편집, 디자인(북/웹·콘텐츠/편집)
서류: 입사지원서 (홈페이지-본사양식)
접수: hr1886@catholicbook.kr
문의: 02-6365-1829
※ 자세한 내용은 catholicbook.kr 직원모집 참조

안내 · 기타 ▶▶**라파엘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6(월)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10일, 715만원)
2/24(월), 3/3(월) 출발 특가: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385만원)
라파엘특선 (동반자 100만원 할인):
1/17(주일),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1/15(수), 2/11(화), 3/11(화) 포르투갈 일주 (9일)
3/26(수) 이태리 일주 (히년 전대사, 9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120만원, 3박4일 / 문의: 010-3645-9028

2025년 이탈리아 순례 - 작은형제회

제78차: 3/19(수)~3/31(월), 550만원
제79차: 6/10(화)~6/22(주일), 550만원
장소: 이탈리아 로마, 아씨시 및 프란치스칸 성지
문의: 010-9704-9495,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27(금)~1/7(화) 2025년 히년 이탈리아 (560만원)
1/3(금)~14(수) 튀르키예, 그리스 (495만원)
1/7(화)~13(월) 스페인 남부 (375만원)
1/13(월)~24(금) 성모발현지 피정 (475만원)
문의: 02-2281-9070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3(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1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대상	장소	문 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0/27(주일) 09시	서울 분원 (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전교 주일

오늘은 전교 주일로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전교 주일은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선교 지역의 교회를 영적·물적으로 돕고자 제정된 날입니다. 이날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선교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본 사명임을 깨닫고 복음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교 주일의 역사는 폴린 마리 자리코(Pauline Marie Jaricot)가 프랑스 리옹에서 만든 '전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하느님을 전하고자 먼 나라로 떠난 선교사들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매주 하느님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모임을 만들어 1822년 5월 '전교회'라는 정식 단체를 발족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1844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1831년~1846년 재위)에 의해 정식으로 인준되었고, 설립 100주년이 되던 1922년 5월 포교성성(오늘날 복음화부) 산하의 '교황청 전교기구'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비오 11세 교황(1922년~1939년 재위)은 이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1926년 전교 주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전교 주일은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 주일에 지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제98차 전교 주일 담화에서 '혼인 잔치의 비유'(마태 22,1-14)를 성찰하면서 선교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① '가다'와 '초대하다'라는 두 단어가 함의하는 선교의 본질을 되새기며 "끈기 있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 ② 비유에 나오는 잔치는 "종말론적 잔치"로서 매 미사의 성찬례에서 거행되며, 성찬례는 선교의 원동력이 된다. ③ 선교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요구된다.



**“가서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여라”** (마태 22,1 참조)

**제98차
전교 주일
2024년 10월 20일**

교황청 전교기구는 교황청 복음화부 소속으로 선교 지역
신앙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사제 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02.2268.7103 | pmsk@pmsk.net | www.pmsk.net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한편, 한국천주교회는 1970년 주교회의 임시 총회에서 전교 주일이 있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과 함께 '전교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발표한 「한국천주교사목 지침서」에서는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목자는 세계 선교에 대한 의식을 증대시키고 영적, 물질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여야 하며, 모든 신자는 특히 전교의 달과 전교 주일을 뜻있게 지내도록 힘써야 한다”(208조).

오늘 전교 주일을 맞아,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 선포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하신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역시 일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도록 합시다. 🌐